

제목: "예수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 마태복음 3장 1-12절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분비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알려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으로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 1) 지금 _____하라 (2절)
- 2) 지금도 회개의 합당한 _____를 맺으라 (8-9절)
- 3) 곧 다시 _____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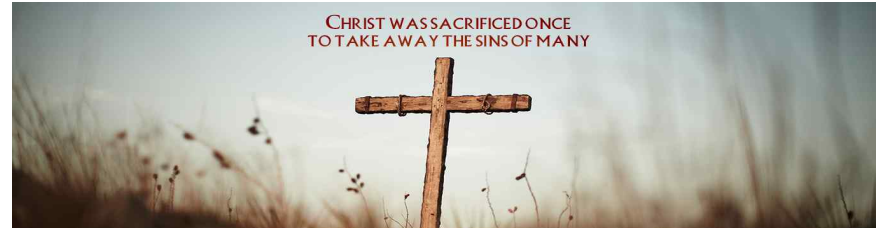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선교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 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3장 1-1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3: 1-12 신약 2 페이지 Presider
- 말씀 "예수 오심을 준비하라" 김성민 목사
 Message Let us prepare His Coming Rev. Kim
- 성찬식 다 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 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고기를 굽는 그 시간)

요즘 나는 아침 8시부터 고기를 굽는다. 일하던 사람들이 나간 후로 나와 내 아내가 오전 9시 30분에 가게 문을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닭고기를 미리 굽지 않으면 손님을 맞을 수 없어서이다. 그래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하기를 거의 오전 11시까지 점심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끝이 없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아침 8시에 고기를 굽는 동안에는 아무의 간섭 받지 않고 일한다. 그 시간이 나에게서는 참 좋은 시간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또한 나에게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나 혼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날에는 그 한 시간 동안 분한 생각만 때도 있었다. 지나갔지만 좋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온갖 후회와 낙심이 생길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때에는 참으로 힘이 들고 내가 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날에는 그 시간동안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는 날도 있었고 다른 날에는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한 생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구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는 날들과 함께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임하는 때도 많았다. 그런 날에는 나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며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생활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내 스스로 보게 되었다.

하루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보낼 것인가? 후회와 낙심을 불러 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당연히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기를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비전의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씨름을 하는 동안 닭고기는 다 구워졌고 손님들은 정시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하루의 생활은 늘 같지만 매일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며 넘고 넘어가는 믿음의 고개를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왕 갈 길이라면 또한 닭고기를 구워야한다면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이 있다. “내 고기를 굽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귀하다...”라는 간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달아간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다.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다 하루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믿음으로 임했느냐?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엇을 하든지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를 위한 사역의 길이고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길이다.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이고 그 모든 날들이 더해져 각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대림절

성탄 주일까지 대림절로 지킵니다. 모두 예수님을 기대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